통일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46호 【루계 제2620호】

주체109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음력 9월 29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일심단결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조선

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한마음한뜻으로 따르는 나라, 단결의 힘으로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헤치며 무진막강한 국력을 과시해나가는 공화국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경탄

《조선은 령도자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있다.

김정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은 미증유의 힘과 기적으로 조선이라는 국호를 떠올리고 있다.

조선식사회주의의 생명력으로 되는 일심단결의 기초는 령도자들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있다.

선대수령들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구현한 조선의 사회주의는 존경하는 김정은위원장의 애민정치에 의하여 보다 공고발전되고있다.》

이것은 우간다전국항쟁운동기관지 《파블리크 렌즈》에 실린 글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한마음한뜻으로 따르는 나라, 단결의 힘으로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헤치며 무진막강한 국력을 과시해나가는 공화국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경탄은 이뿐이 아니다.

네팔인터네트잡지 《네팔투데이》는 조선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가장 특이한 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것이다, 조선이 부닥치는 난관을 극복하고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발전해올수 있은 비결은 사회의 공고한 단결에 있다고 평하였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은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는 혼연일체에 조선사회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련방정치비서국 총조정자는 조선의 경험은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있고 자체의 막강한 국력이 있으면 그 어떤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언제나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심은 인민을 위하시는 그이의 한없이 고매한 풍모와 인덕정치에 바탕을 두고있다고 하면서 인디아신문 《인디안 앤드 월드 이벤트》는 김정은위원장의 정치활동은 언제나 인민과 련결되여있고 인민의 포부와 념원을 실현하는 중대사들로 엮어져있다고 찬양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인터네트신문 《르몰》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자신을 인민의 복무자로 간주하고계신다.

그이께서 인민들과 함께 찍으시는 사진들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물고기비린내가 가득찬 저장고나 흙묻은 감자무지에 인민들과 스스럼없이 앉아 찍으신 사진과 유치원아이들을 곁에 세워 찍으신 사진 등 현지지도의 길에서 남기신 사진들은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의 사진첩에서는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캄보쟈의 아까빼통신은 세상사람들이 누구나 매혹되지 않을수 없는 명인으로 칭송하고있는 김정은위원장을 조선인민은 《우리 령도자》, 《인민이 사랑하는 령도자》로 칭송하고있으며 그이께서 찾으시는 그 어디에서나 인민들은 열광의 환호를 올리며 감격해한다고 보도하였다.

에티오피아신문 《포춘》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민족의 안전과 운명을 수호해나가시는 령도자를 결사옹위하며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은 조선을 불패의 강국으로 떠받드는 위대한 힘으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 하바롭스크변강위원회 제1비서는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진 조선은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더욱 떨쳐갈것이다고 확언하였다.

본사기자

공화국에서 80일전투가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또다시 새로운 승리가 태동하고있다.

8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부강조국건설의 보다 새로운 전진의 활로를 열어제낄 드높은 열의가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다.

창조와 기적으로 날이 새고 동이 트는 피해복구지역들을 비롯하여 도처에서 련일 자랑찬 승리의 소식들이 전해지고있다.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은 벌써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열리게 될 뜻깊은 1월에로 달리고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당들이 있고 정당들마다 자기의 당대회를 진행하고있지만 공화국에서처럼 당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세차게 들끓는 투쟁기세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이 나라 인민의 마음은 무엇으로 하여 그처럼 뜨겁게 끓어번지고있는것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있다.

이 땅에 생을 둔 사람들 누구나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자주적운명개척의 등대이고 부강조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기적들이 련이어 일어나는 창조와 건설의 년대들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와 더불어 보다 휘황찬란할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며 공화국인민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한없는 행복과 영광으로 가슴들먹이였다.

그리고 누구나 온넋으로 체험하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뜨겁게만 느껴지는 어머니당의 은혜로운 사랑을.

올해만 놓고보아도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에 참으로 류다른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잊지 못할 나날의 련속이였다.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앞길에 뜻하지 않게 가로놓인 난관, 그것은 지구를 휩쓴 대류행전염병사태와 광란하는 자연의 재난이였다.

하지만 이 나날 공화국인민이 심장으로 느낀것은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자신들 결에는 언제나 위대한 어머니의 자애로운 손길이 있다는 긍지와 행복감이였다.

어느 한 시인은 세상에 어머니와 해빛만 있으면 인간은 산다고 했다.

공화국인민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다름아닌 조선로동당이고 인민위해 베푸는 사랑은 그대로 해빛으로 되고있다.

인민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이 성스러운 력사우에 또 한페지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질 당 제8차대회를 앞두고 80일전투를 전개할데 대한 중대한 결심을 내리였으니 그 품에 안겨 행복을 누려온 인민의 심장이 어찌 격정으로 끓지 않으랴.

조선로동당의 결심은 곧 과학이고 진리이라는것을 75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당의 력사와 더불어 실천으로 체험한 인민이기에,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이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것을 철리로 새겨안은 인민이기에 산악같이 일떠서 전변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가고있는것이다.

오늘의 8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이것이 마음의 신들메를 한껏 조이고 또다시 새로운 총돌격전에 나선 공화국인민의 숨결이고 의지로 되고있다.

이룩한 승리에 자만을 모르고 잠시의 답보와 완만성도 허용하지 않으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기적에서 더 큰 기적을 안아오려는 인민의 강한 진취성과 근면성으로 추동되는 강행군이 바로 80일전투이다.

10월의 대승리와 기세찬 혁명의 도약기를 당 제8차대회에로 억세게 이어나갈 투쟁기세가 끊임없이 분발승화되는 속에 전국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80일전투의 첫달 목표수행에서 자랑찬 성과가 달성되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완강한 공격정신을 체질화한 일심의 대오가 있기에 전인민적인 공격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철리를 뚜렷이 증시해주고있다.

목진아

80일전투에 총매진하고있는 조선인민

로씨야단체들과 인사 성명, 담화 발표

80일전투에 떨쳐나선 공화국인민의 투쟁에 로씨야의 단체들과 인사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회의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조선인민은 당 제8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80일전투에 총매진하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악성비루스전파와 자연재해를 비롯한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있는 조선인민이 당대회를 자랑찬 성과로 빛내이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과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소장 와짐 꾸지민은 담화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진보적인류는 악성비루스로 인한 세계적인 대재앙속에서도 조선에서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적시적인 방역조치들이 취해져 인민의 안녕과 나라의 안전이 지켜지고 80일전투라는 거창한 진군이 개시된데 대해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시며 현대적인 농촌마을들이 빠르게 일떠서고 피해지역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살림집을 받고있는것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조선로동당만이 펼칠수 있는 현실이다.

조선로동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조선인민은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며 위대한 승리를 안아올것이다.

조선인민이 8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상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리라고 확신한다.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쎄바스또뽈시위원회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언제나 선봉적역할을 해온 조선의 청년들은 80일전투에서도 시련과 난관을 앞장에서 뚫고나가며 용감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할것이라고 성명하였다.

본사기자

조 국 소 식

문천군민발전소 준공식 진행

강원땅에 문천군민발전소가 또 하나의 자력자강, 자급자족의 창조물로 일떠섰다.

문천군민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지방경제와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고 시의 음료수와 관개, 공업용수문제를 원만히 풀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문천군민발전소 준공식이 6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강원도당위원회 위원장,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문, 문천시 일군들, 근로자들, 건설자들, 발전소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준공사를 문천시당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원천이 풍부한 강원도에서 마식령에 물길굴을 뚫어 원산시와 문천시에 발전소들을 건설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강원도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렬에서 힘차게 전진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천군민발전소를 비롯한 여러개의 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끌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로 내세워준 당중앙의 믿음을 심장깊이 새겨안은 건설자들이 착공의 첫 발파소리를 울린 그날부터 치렬한 돌격전으로 굴뚫기와 갱피복 등 전반적인 공사를 본때있게 추진시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건설자들은 석수가 쏟아지고 강추위와 큰물이 들이닥치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련속천공, 련속발파로 매일 굴진계획을 2배이상 해제낌으로써 물길굴을 기한전에 관통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문천시인민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발전소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으며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룡담세멘트공장을 비롯한 련관단위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완공의 날을 앞당기는데 적극이바지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여러 군민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80일전투목표를 무조건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발전소종업원들은 설비관리, 물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당 제8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발전소를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각 지 에 서

80일전투성과 련일 확대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당 제8차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은 사회주의경쟁의 위력으로 80일전투성과를 확대해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생산자대중의 혁명열과 창의창발성을 더욱 고조시켰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직장별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대형산소분리기설치공사와 철강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물랭각탑제작과 공기압축기설비조립을 일정계획보다 앞당겨 끌낸 이들은 앙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과감한 련속공격전을 벌려 매일 철강재생산목표를 110%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화선식정치사업으로 종업원들의 증산경쟁열의를 고조시키고있는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도입하고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피해복구전역들에 세멘트를 중단없이 보내주고있다.

신의주신발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유휴자재수집을 짜고들어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한것을 비롯하여 재자원화를 위한 사회주의경쟁이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새 제품개발을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온 남시축산기계공장의 종업원들이 최근에 내놓은 여러 종의 기계제품은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축산물생산에 이바지하는것으로 하여 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벽성농기계공장, 해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에서도 따라앞서고 따라배우기 위한 경쟁속에 농기계부속품과 중소농기구생산을 늘이고있다.

생산자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며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힘있게 전개되는 사회주의경쟁은 당 제8차대회를 향한 전인민적공격전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금 연 법

◆ 흡연이 사람들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자료에 의하면 폐암사망률의 90%, 기관지염사망률의 75%, 허혈성심장병사망률의 25%와 높은 비률의 위궤양, 임신합병증들이 담배를 피우는것으로 하여 생겨나고있다고 한다.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도 심각한데 간접흡연에 의해 년간 100만명이 목숨을 잃고있으며 6만명이상의 5살미만 어린이들이 호흡기감염증으로 죽고있다고 한다. 하기에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흡연이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최근에는 《〈COVID-19〉가 주로 기도와 폐를 통해 침입하기때문에 흡연자가 악성전염병에 걸릴 위험성이 더 크다.》는 주장이 나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 이처럼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흡연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 적극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많은 나라들에서 여러가지 금연조치들을 취하는것이 하나의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2005년 7월 《담배통제법》이 채택되였으며 금연연구보급소와 각 도의 산하분소에서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해로운 작용과 담배를 끊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하여 알려주는 등 담배로부터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왔다. ◆ 얼마전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금연법이 채택되였다. 금연법에는 국가금연정책의 요구에 맞게 담배생산 및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 사회적통제를 강화하는 준칙이 담겨있다. 이 금연법은 담배의 생산부터 판매, 흡연까지 통제하는 법률로서 극장, 영화관 등 공공장소, 어린이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 보건시설, 상업, 급양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 등에 흡연금지장소를 지정하고 흡연질서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간의 생명을 첫자리에 놓는 공화국에서 금연법이 채택된것은 인민사랑의 또 하나의 조치로서 사람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게 될것이다.

이 나라의 훌륭한 어머니들

11월 16일은 어머니날이다.

세상에 어머니들은 많아도 자기의 소중한 명절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속에 사는 이 나라 어머니들처럼 행복한 어머니들이 또 있겠는가.

어머니!

모든 인간의 생은 그 품에서 시작된다. 어머니란 말보다 더 신성하고 친근하며 소중한 부름은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어머니라는 친근하고 다정한 부름에는 후대들을 위해 천만고생을 락으로 달게 여기며 사랑과 정을 바치는 녀성들에 대한 사회적존중과 높은 기대의 뜻이 담겨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아침마다 밝고 명랑하게 학교길에 나서는 아이들의 얼굴에도, 다 자란 자식들의 끌끌한 모습에도 어머니들의 살뜰한 정과 사랑이 어려있다.

단란한 살림의 어느 구석에나 젖은 손 마를새 없는 어머니들의 수고가 비껴있고 불밝은 저녁 집집의 창가에 넘치는 행복한 웃음소리에도 다정한 어머니들의 사랑의 향기가 스며있다.

힘들세라, 아플세라 자식들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귀밑머리 희여져도 변함이 없고 애국의 대를 이어가는 아들딸들의 걸음걸음을 보살피는 손길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뜨겁고 지극해만진다.

자식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더없는 기쁨과 행복, 보람으로 여기는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다.

람홍색공화국기 펄럭이는 이 땅에서 사는 어머니들은 너나없이 아름답고 강의하며 훌륭한 어머니들로서 가정과 사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공화국인민이 걸어온 준엄하고도 영광스러운 길우에는 자기들의 삶을 오로지 조국의 운명과 하나로 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크나큰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친 훌륭한 어머니들의 공적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나라를 잃으면 제일먼저 짓밟히는것이 모성의 권리이고 민족이 수난을 겪으면 그 설음과 아픔을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어머니들이라는 력사의 진리를 이 땅의 어머니들은 뼈에 사무치게 깨달았다.

지난날 식민지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속에서 어머니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어머니로서의 사랑과 권리를 통채로 빼앗겼던 조선의 어머니들이였기에 귀여운 자식들의 행복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나라찾는 피어린 싸움에 용약 떨쳐나서지 않았던가.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조선의 혁명가들은 어머니들이 지어준 군복을 입고 어머니들이 만들어준 붉은기를 높이 들고 항일대전의 총성을 과감히 울리였으며 유격대어머니들의 불같은 사랑과 열정에서 새 힘과 용기를 가다듬으며 나라찾는 싸움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나갔다.

가렬한 전쟁의 불바다를 헤치고 전후 빈터에서 일떠선 공화국이 지난 1990년대에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포성없는 전쟁을 치르어야 했을 때 이 땅의 어머니들은 언제나 령도자만을 따르고 결사보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전쟁도 복구건설도 문제로 되지 않으며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수령님만을 지지한다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억척같은 신념은 고난의 시기 쓰러지면서도 기대를 돌리고 전야를 가꾼 어머니들의 불굴의 의지로 이어졌다.

애지중지 키운 아들딸모두를 조국수호의 최전방으로 떠밀고 남편들과 한전호에 서서 조국의 방선을 지켜가는 어머니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하기에 사람들은 영웅조선의 상징인 천리마동상에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리는 녀성천리마기수의 형상은 당과 조국이 부르는 모든 전선에서 조선녀성의 불굴의 신념과 영웅적기상을 떨쳐온 이 나라 어머니들의 모습이라고 긍지높이 말하는것이다.

정녕 이 땅의 새 세대들은 책에서보다 먼저 정의롭고 강의한 어머니들의 모습에서 령도자를 어떻게 받들어야 하며 한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며 자라났다.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고 훌륭한 어머니의 뒤에는 위대한 스승이 있다.

이 나라의 천만자식들을 키운것이 우리 어머니들이라면 그들을 보살피고 이끌어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또 한분의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첫 어머니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어릴 때에 어머니한테서 배운것은 일생동안 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들이 제일 오래 기억하고있는것은 어머니가 해준 말씀, 어머니의 모범이라고 하시며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들의 훌륭한 스승이 되고 교양자가 되라는 간곡한 당부를 담은 뜻깊은 연설도 하신 어버이수령님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머니들의 수고와 남모르는 고충도 깊이 헤아리시고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것을 당과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시였다.

수고많은 어머니들을 한없이 위하고 아껴주신 수령님의 뜻을 그대로 받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니들이 세운 위훈이라면 더없이 크게 여기시며 빛내여주시고 나라에 영웅들이 나올 때마다 그뒤에 소문없이 스며있는 어머니들의 공적도 깊이 헤아려주시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열린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그것은 조선의 사회주의대가정에 어머니들의 운명도 미래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또 한분의 위대한 어버이가 계신다는것을 긍지높이 선언한 뜻깊은 사변이였다.

나라와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해 바친 어머니들의 수고를 장하게 여기시며 어머니날을 제정하도록 하시고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도 열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에 온 나라 녀성들과 어머니들이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해마다 천만자식들이 기쁨속에 맞이하는 어머니날,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온갖 아름다운 꽃송이들이 엮어진다.

자식들의 다함없는 사랑과 정이 어린 향기로운 꽃다발속에는 아들딸들을 나라의 대들보로 꿋꿋이 자래우며 헌신의 길을 걷고있는 이 나라의 어머니들에 대한 령도자의 믿음과 기대가 한껏 실려있다.

그 꽃들을 가슴넘치게 받아안으며 이 나라의 어머니들은 어머니가 된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고있다.

전귀옥

첫 어머니날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된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자녀교양을 위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대회가 열리였을 때였다.

대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앞에 나서는 과업과 관련한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설에서 어릴 때에 어머니한테서 배운것은 일생동안 잊어지지 않는다, 우리들이 제일 오래 기억하고있는것은 어머니가 해준 말씀, 어머니의 모범이다, 어머니가 준 인상은 사람들의 성격과 습관을 이루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옛날부터 훌륭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시였다.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이 노는 특출한 역할에 대한 매우 뜻깊은 교시였다.

우리는 어머니의 아들딸들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리수복영웅의 고향을 찾으신 일이 있었다.

영웅의 고향집으로 향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영웅의 집과 잇닿은 길어구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이 길은 참으로 뜻깊은 길이라고, 리수복영웅은 이 길을 걸어서 학교에 다녔을것이고 이 길을 걸어서 전선으로 나갔을것이라고 감회깊은 어조로 이야기하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웅의 어머니는 이 길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것이라고, 그런데 오늘은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이 길을 걷는다고 하시면서 리수복영웅의 고향집에 들어서시였다.

어머니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수복영웅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대신 우리가 어머니의 곁에 있다고, 우리는 다 어머니의 아들딸들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정녕 그이의 이 교시는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앞에 내세운 우리의 어머니들에 대한 절세위인의 열화같은 사랑이였고 믿음이였으며 존경이였다.

온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몇해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동해기슭의 한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사업소의 물고기생산량을 늘이는것과 관련한 문제를 일일이 가르쳐주신 그이께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부모있는 아이들보다 더 잘 키우자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것이 아닌가고, 우리가 좀 더 고생을 하더라도 부모없는 아이들의 가슴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도록 하자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곳 일군에게 동무가 앞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을것 같다고, 자신의 마음을 대신하여, 온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원아들에게 공급해주자고 하시였다.

본사기자

수필

어머니들이 드리는 인사

저녁식사가 끝났을 때 8살난 아들애가 문득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어머니, 이제 며칠밤 자면 어머니날이지요? 난 어머니한테 멋진 선물을 드리겠어요.》

《참 애두, 난 그저 네가 공부를 잘해서 최우등을 하면 그보다 큰 선물이 없단다.》

철부지아들애의 엉뚱한 말이 대견스러워 한동안 정겨운 눈으로 보느라니 가슴이 뜨거워진다.

어머니날!

해마다 11월이 되면 맞군 하지만 이해의 어머니날은 더욱 류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켜준다.

아마도 올해가 세계적인 대재앙과 련속 겹쳐든 큰물과 태풍피해로 시련과 고난이 많은 해여서일것이다.

한해가 끝나가도록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악성비루스피해자들의 신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고 악마와도 같은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눈물젖은 목소리가 끊길 날이 없다.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제 겨우 21살이랍니다.》

《제 딸은 전염병에 걸린지 사흘만에 숨이 졌습니다. 이젠 어떻게 살아갈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따뜻한 모성애로 가득찼던 어머니들의 가슴속에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는것은 악성비루스피해만이 아니다.

해마다 들이닥치는 자연의 대재앙으로 집을 잃고 어린 자식들과 함께 아직도 한지에서 헤매이는 어머니들, 분쟁과 기아로 생때같은 자식들을 잃고 피눈물속에 몸부림치는 어머니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지구상에는 절망의 한숨이 아니라 행복의 웃음을 짓고있는 어머니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어머니들이다.

이 나라의 그 어느 어머니에게나 물어보라.

전세계를 죽음의 소용돌이속에 휘몰아넣고있는 악성비루스때문에 귀여운 자식들을 잃고 눈물을 흘린적 있는가를, 련이어 들이닥친 태풍과 큰물로 사랑하는 자식들에 대한 걱정으로 한밤을 지새운적 있었는가를.

그러면 누구나 한목소리로 대답할것이다.

우리 자식들은 모두 건강하다고, 나라에서 덩실하게 지어준 새 집에서 자식들이 웃고있다고.

이렇듯 이 땅의 어머니들은 세계적인 대재양속에서도 자식들과 함께 기쁨과 행복의 웃음을 짓고있다.

아, 어머니날!

그렇게 찾아오는 이해의 어머니날이다. 이 땅의 어머니들이 기쁨과 즐거움, 긍지와 랑만속에 이날을 맞게 되는것이 원래부터 타고난 복인가. 아니다. 고마운 제도와 정치가 있어 어머니들이 누리는 특혜인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속삭였다.

(얘야, 우리 조국의 따사로운 품이 있어 나도 행복하고 너희들도 행복한것이다.)

어머니날은 어머니들에게는 축하를 받는 명절이지만 그날에 이 나라의 어머니들은 누구나 고마움과 격정에 겨워 운명의 보호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마음속으로 큰절을 드리게 되리라.

김정련

기쁨넘치는 꽃상점

어머니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이날을 맞으며 각지에 있는 꽃상점들과 기념품상점들이 더욱 흥성이고있다.

사람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게 갖가지 아름다운 꽃송이와 꽃다발을 봉사해주는 여기 역전꽃상점에서도 기쁨이 넘치고있다.

《봉사원동무, 장미꽃다발을 부탁합니다. 우리들을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신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꽃상점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을 준비해주십시오.》

…

어머니에게 드릴 꽃다발을 찾아보는 손님들의 얼굴에도, 꽃다발을 더 아름답게 엮어주기 위해 애쓰는 봉사원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여있다.

이곳 한명순봉사원의 말에 의하면 장미는 생일, 명절을 비롯한 많은 기념일과 계기들에 선물로 리용되고있으며 꽃장식과 꽃다발을 엮는데서 가장 인기있는 꽃으로 되고있다고 한다. 특히 어머니날이나 3.8국제부녀절 같은 명절에는 사랑과 열정, 아름다움과 고상함을 상징하는 장미꽃에 대한 수요가 제일 높다고 한다.

그는 상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장미뿐아니라 카네숀, 나리 등과 같은 꽃들, 붉은색과 같은 열정적인 색갈의 꽃들을 주는것이 좋다고, 나이가 많은 어머니들인 경우에는 건강장수의 의미를 담아 만복화와 같이 오래 피는 꽃을 안겨주면 기쁨을 더해줄것이라고, 뿐만아니라 남달리 좋아하는 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꽃을 주게 되면 축하의 의미가 더욱 깊어질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해주고있다.

꽃상점을 찾는 사람들의 직업과 나이는 서로 달라도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자기들을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글 본사기자 리경월
사진 본사기자 동창현

위인의 유모아

맏아들, 맏며느리

지금으로부터 몇해전 12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해 경제사업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의논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발휘하였던 그 정신, 그 기세로 다음해에도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에 힘을 넣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제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면 인민경제의 맏아들인 금속공업을 추켜세우고 맏며느리인 화학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나라의 경제를 떠받드는데서 쌍기둥을 이루는 부문에 대한 통속적이고 해학적인 말씀이였다.

본사기자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자 명 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주체99(2010)년 10월 20일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이며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인 마르틴 뢰체르가 드린 선물이다.

당시 조선을 방문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 매혹된 그는 그이께 선물을 올릴것을 생각하였고 귀국한 후 자기 나라에서 이름있는 자명금을 마련하였다. 자명금은 스위스에서 특제품으로 널리 알려져있다고 한다.

선물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음악을 감상하시면서 휴식하시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 담겨져있다.

나무로 된 둥근 모양의 자명금안에는 특수한 자명장치가 있으며 밑바닥에는 태엽장치가 설치되여있다. 자명금뚜껑에는 은솜다리꽃과 오선지, 바이올린과 뿔나팔이 그려져있다.

본사기자

후대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조선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 찬양

교육사업을 나라의 장래를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내세우고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공화국의 교육정책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찬양하고있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가시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2012년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실시에 관한 법령이 발포되였다.

하여 조선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수 있는 교육체계가 완비되고 중요대학들의 원격교육체계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세워져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넓은 길도 열리였다.

조선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특징에 대하여 베네수엘라 인터네트홈페지 《엘 글룹 데 라스 나씨오네스》는 이렇게 평하였다.

특징은 우선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고있다는것이다.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국가정책에 구현되고있는 조선에서는 돈밖에 모르는 서방사회에서는 리해하기 힘든 현실들이 수없이 펼쳐지고있다.

학교교육뿐아니라 사회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등 온갖 형태의 교육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하고있다.

특징은 또한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장 합리적인 교육방법을 지향해나가고있다는것이다.

현시대는 지식경제시대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세계는 중등일반교육을 중시하고 그 기간을 늘이고있다.

조선에서 실시하고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에 의해 이 나라의 학생들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폭넓은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있다.

브라질주체사상연구쎈터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교육단위들에 수많은 현대적인 교육설비와 체육기자재들을 보내주시였으며 새 학년도 개학식이 의의있게 진행되도록 하신 소식을 전하면서 조선의 학생들은 **김일성**주석께서 마련해주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발전시켜오신 교육제도, 오늘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빛내여가시는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속에서 마음껏 공부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세네갈신문 《러 뽀뿔래르》는 등대섬의 한두명 아이들의 개학날이 늦어지는것이 걱정되여 직승기가 뜨고 산골의 몇몇 학생들의 등교를 보장하기 위해 통학렬차나 통학뻐스가 운영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찬양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이런 글을 올렸다.

조선에는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교육제도가 세워져있다.

조선의 교육제도는 사회의 일반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지속적인 사회 및 경제발전을 담보할뿐아니라 뛰여난 인재들을 수많이 배출하고있다.

최근년간 국제수학올림픽을 비롯한 세계적인 학과경연들과 국제콩클에서 조선의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련이어 우승하고있는 현실은 조선의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실증해주고있다.

캄보쟈의 아까뻬통신은 조선의 나어린 학생들이 국제무대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있는것을 두고 세계의 많은 교육자들은 조선이야말로 인재가 많은 나라,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빠뜨리오뜨 모스크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교육중시, 후대사랑의 고귀한 뜻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찬란한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후대교육사업을 언제나 나라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계신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의 주체교육은 끝없이 비약하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더욱 높이 발휘될것이다.

본사기자

하나의 대가정

흔히 가정이라고 하면 부모와 자식 등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생활을 같이 하는 사회의 세포이며 사회의 존재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의 한 단위이다. 이런 수백, 수천만에 달하는 가정이 모여 이루어지는것이 사회이지만 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다는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로 만든 나라가 있다.

바로 공화국이다.

공화국에서 펼쳐지고있는 감동깊은 화폭들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화국에서도 련이어 들이닥친 큰물과 태풍피해를 입는 등 엄청난 도전과 장애가 겹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과 재앙속에서도 한숨과 비애, 절망과 비관에 빠진 사람들은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온 사회가 생기와 활력에 넘쳐 더 좋은 래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왜 그런가.

령도자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쳐있기때문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지난 9월 함경남도를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잊지 못하고있다.

피해지역 인민들이 당한 불행과 고통을 두고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아직은 태풍의 여파가 채 가셔지지 않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멀고 위험천만한 길을 달려오시였으랴.

이보다 앞서 큰물피해를 입은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를 찾으시였을 때에도, 태풍이 휩쓸고 간 황해남도를 현지지도하시였을 때에도 길아닌 험한 길을 걸으시였던 그이이시다.

정에 울고 정에 사는것이 인간이라고 했다.

자식을 낳아키워준 친부모들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와보지도 못한 그 험한 피해지역들로 남먼저 차를 달려, 기차를 달려 찾아주시였으니 온 나라 인민들을 다 따뜻이 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께 사람들 누구나 더욱더 마음이 끌리우고 격정과 고마움의 인사를 드린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사랑과 믿음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라고 할수 있다.

몸소 펜을 드시고 어려울때 수도의 인민들이 힘들어하는 지방인민들을 성심성의로 부축하고 고무격려하는것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풍이라고 할수 있다고, 당의 격정과 보살핌의 손길로, 수도 평양의 따뜻한 정으로 피해지역 인민들을 극진히 위로하고 한시바삐 재난을 털어버리도록 정성다해 지원하고 투쟁할것을 수도당원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고 한자한자 쓰실 때 그 믿음과 사랑에 이 나라의 천만군민 누구나 격정으로 가슴설레였다.

그 믿음에 보답하고저 저저마다 수도당원사단에 탄원하고 앞을 다투며 멀고 험한 피해복구지역들에로 달려간것이다.

이렇듯 이 땅우에서는 령도자와 인민이 떨래야 뗄수 없는 혈연의 정으로 굳게 이어져있다.

일찍부터 공화국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생활속에 깊이 자리잡고있다.

이번 큰물과 태풍피해를 겪으며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미풍들이 더 활짝 꽃펴났다.

자연재해를 당하고 집과 가산을 잃은 사람들을 저저마다 제 집으로 이끌고 한가지라도 더 보태주기 위해 애쓰는 감동적인 모습들을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었다.

지금도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장들에서는 인민군군인들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 이런 군인들에게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친자식에게 고향소식을 전하듯 편지를 보내며 고무격려해주고있다.

이런 군민대단결이 있어 큰물과 태풍피해를 입은지 한두달도 안되여 도처에서 새집들이경사가 나고 누구나 그것을 제일처럼 기뻐하고있는것이 아닌가.

남들은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이 아니고서는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진정 인민에 대한 령도자의 사랑과 정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기에 인민은 령도자께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맡기고 그이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쳐 나아가고있는것이다.

하기에 세계의 언론들도 공화국은 령도자가 인민을 최상으로 내세워주고 인민은 령도자를 친어버이로 모시고 따르는 《대가정국가》라며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령도자와 인민이 혈연의 정으로 굳게 이어져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에서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길이 울려퍼지고있다.

지 남 철

《물난 뒤에는 남는것이 없다지만…》

이 땅우에 행복의 선경들이 련이어 펼쳐져 만사람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얼마전 함경북도 김책시 춘동리, 은호리, 석호리, 함경남도 리원군 학사대리의 피해지역들에서 새집들이경사가 난데 이어 11일 강원도 김화군 읍지구와 초서리, 연송리를 비롯한 17개 리, 로동자구에 새집들이풍경이 또다시 펼쳐졌다.

나날이 늘어나는 새집들이 풍경은 인민을 위한 천만고생을 락으로, 무상의 영광으로 여기는 조선로동당의 열화같은 정과 보살핌속에 마련된것이며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번영하는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현지에서 진행된 살림집입사모임들에서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대재앙이 휩쓴 폐허우에 훌륭한 살림집들이 아담하게 일떠서 오늘의 경사를 맞이하게 된것은 천만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따르지 못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인민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새 집을 받아안은 주민들 역시 꿈같은 현실에 북받치는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높뛰는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김책시 석호협동농장의 혁신자인 정은순은 오늘과 같은 복을 받아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고마운 어머니당, 우리 제도를 위해 농업근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겠다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으며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는 자식들과 함께 방에 들어선 리원군 학사대협동농장 농장원 김금일은 우리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수도당원들이 일떠세운 보금자리를 모두가 부러워하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집은 평양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당중앙위원회 뜨락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사는 제일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였다.

김화땅에 태를 묻고 살아온 김화군 읍 85인민반의 전쟁로병 리은식로인은 예로부터 불난 뒤에는 남는것이 있어도 물난 뒤에는 남는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새 집이 생겼다, 로동당세상이 아니면 꿈에도 바랄수 없는 행운이라고 눈물속에 말하였으며 김화군인민위원회 위원장 최성희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땅을 자급자족하는 군으로 만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며 군내 살림살이를 책임진 호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날에 날마다 행복의 선경들이 꽃펴나는 오늘의 이 전변은 조선로동당의 손길아래 펼쳐질 리상문명사회의 래일을 환희롭게 그려주고있다.

본사기자 황 금 숙

팔이 한 두 현실

얼마전 서방의 어느 한 나라에서 심한 태풍피해를 입었을 때였다.

갑자기 들이닥친 태풍으로 여러 도시에서는 혼란이 조성되였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피해입은 주민들을 구조하고 도와주는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때라 생각하고 저마끔 살인과 강탈을 일삼은것이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나서는것은 인간본연의 행동이다.

하지만 너 아니면 나라는 극도의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의 사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런 초보적인 인간성마저 상실한 행위들이 뻐젓이 벌어지고있다.

당시의 상황을 두고 현지 주민들속에서는 《실로 아비규환이였다.》,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를 도와달라.》, 《살려달라.》는 목소리들이 도처에서 터져나왔다고 하였다.

비단 이 나라에서만이 아니다. 큰물과 태풍피해를 받은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집과 가산을 잃고 살길이 막막하여 걱정과 눈물, 래일에 대한 불안속에 살고있다.

그러나 세계에는 이와는 다른 현실도 있다.

올해에 자연의 광란은 공화국의 많은 지역들도 휩쓸었고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뜻밖의 재난을 당하게 되였다. 하지만 어디서도 한숨과 비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볼수 없다.

누구나 남의 불행을 제일처럼 여기며 서로 돕고있고 온 나라가 떨쳐나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주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이 적극 벌어지고있는것이다.

공화국에서는 피해복구사업이 국가적인 최대중대사로 되고있고 인민사수전으로 진행되고있다. 피해복구에 억만금의 재부가 든다 해도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는것이 국가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관점이다.

하여 피해복구사업이 낮과 밤이 따로없이 힘있게 진척되여 이미 많은 지역들이 어제날의 모습을 씻은듯이 가셔내고 황홀한 별천지들로 전변되였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돈 한푼 안 내고 국가로부터 덩실한 새 집을 받아안고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는것이 지금 공화국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최 광 혁

인민이 누리는 복

지금 공화국에서는 날마다 새집들이소식으로 흥성이고있다.

큰물과 태풍피해를 받아 한지에 나앉았던 주민들이 불과 몇달만에 원래 살던 집과는 대비도 안되는 뎡실하고 아담한 새 집들을 받아안고 너무 좋아 어깨춤 들썩이고있다. 사랑의 입사증을 받아안고 새 집의 문을 열고 들어와 여기저기 손으로 정히 쓰다듬어보는 주민들의 얼굴마다에서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있다.

자연의 재난을 당하였을때만 해도 이런 큰 복을 받아안으리라고 누군들 생각이나 했겠는가.

인민을 위한 정치가 좋아 화가 복으로 된것이다.

새 집을 받아안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서 공통적인것은 누구나 집값이 얼마인지 모른다는것이다. 국가가 무상으로 안겨주니 말이다.

돈 한푼 안 들이고 새집들로 안겨준것이다.

인간의 활동과 가정생활에서 집은 없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보금자리이다.

그러나 이 행성에는 집없는 사람들이 많다. 집을 사자고 하여도 그 값이 너무 비싸 이하는것이 어찌 지금의 피해지역 주민들만이랴.

수도의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의 살림집들을 비롯하여 국가가 인민에게 안겨준 훌륭한 새 집들은 다 무상으로 안겨준것이다.

인간의 활동과 가정생활에서 집은 없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보금자리이다.

그러나 이 행성에는 집없는 사람들이 많다. 집을 사자고 하여도 그 값이 너무 비싸 살 엄두도 못 내고 10년 지어 수십년을 번 돈을 고스란히 모아 제 집을 마련하는것이 행성의 보편적인 현실로 되고있다.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공화국의 새집들이풍경을 보면 다 놀라워할것이다. 부러워할것이다.

당과 국가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생활의 구석구석을 다 헤아려 보살펴주고있는것은 공화국인민들이 받아안고 누리고있는 큰 복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강 류 성

젊어지라 복받은 대지여!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풀판에 구름처럼 흘러가는 소떼와 양떼, 곳곳에 일떠선 꽃동네같이 아름다운 마을들이며 집짐승우리와 공공건물들…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정경은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세포,

예로부터 눈포, 비포, 바람포로 유명하던 고장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 고장 사람들은 풀풍년, 고기풍년, 젖풍년이 들어 세포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있다.

본사기자

뭇매를 맞고있는 《서진전략》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국민의힘》의 《서진전략》이 안팎으로 뭇매를 맞고있다고 한다.

《서진전략》은 전라도 등 서쪽지역으로 진격한다는것인데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국립5.18민주묘지》에 대한 《무릎사과》와 큰물피해지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 등으로 지역민심을 사보려고 전라도에 분주히 드나들고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국민의힘》지지률은 10월 중순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였다고 한다.

이 당지도부가 추진하고있는 《서진전략》에 대한 보수세력내부의 반발도 심화되고있다고 한다.

대구, 경북지역의 한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역주민들이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당이 《내 집마당도 챙겨야 한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국민의힘》출신의 인물들은 《지금 호남에 가서 선심성공약을 할만큼 한가로운 시기가 아닌데 무슨 서진전략인가.》, 《호남에 가서 벼락치기 공들인다고 호남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즉시 돌아오지 않는다.》, 《비대위가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지 모르겠다.》, 《호남에 가서 표구걸이나 한가하게 하고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다.》고 로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서진전략》을 계속 추구하고있지만 그에 대한 전라도민심은 매우 쌀쌀하다고 한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더이상 정치적쇼(보여주기)로 호남민심과 5.18을 우롱하지 말고 약속한대로 당론과 법안통과로 진정성을 립증하라.》고 하면서 지난 8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5.18관련법안도 협조할것이라며 무릎꿇고 사죄했지만 한낱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것이 지난 3개월간의 행적에서 드러났다, 아직도 5.18력사외곡처벌법에 대한 분명한 립장을 밝히지 않고있다, 이미 발의된 5.18관련법안에 대해서도 《립법하는 과정에서 여러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죄를 무색케 했다.》고 신랄히 비판하였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련합은 《국민의힘》이 지역단체장들과 회의를 하는 광주시의회앞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광주방문규탄》, 《국민의힘은 5.18망언의원 당장 제명하라!》, 《5.18특별법제정에 적극 나서라!》의 구호판을 들고 시위를 벌리였다.

남조선언론들은 《국민의힘》의 《호남끌어안기》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지지가 확고하게 유지될것이란 판단아래 추진되였다, 대구, 경북민심이 흔들릴 경우 《집토끼(대구, 경북지역), 산토끼(전라도지역)》론쟁에 휩싸일수 있다, 정당지지도가 답보상태에 그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체제에 대한 기대가 점차 사그라지는것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있다고 평하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서진전략》은 겉으로 《호남껴안기》의 모양새를 띠고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호남지역출신이 많은 수도권을 겨냥한것이라고 비평하였다.

본사기자 김 정 혁

남조선 각계층이 다양한 투쟁에 돌입

남조선에서 로동법개악저지, 미국과의 《동맹대화》반대와 남조선강점 미군의 세균전부대추방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날로 고조되고있다고 한다.

민주로총은 9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로동자 절규가 들리는가? 국회는 로동법개악말고 전태일3법 립법하라.》고 하면서 전태일이 분신한지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용로동자들이 한해에 2 500명씩 죽어가고있다, 《전태일3법》립법을 위해 《국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어느 《국회》의원도 로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국회》가 주민의 절대다수인 로동자들의 요구가 담긴 립법사항을 즉각 론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로총 대구지역본부와 정의당 대구시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2020 대구민중대회 준비위원회》를 뭇고 10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준비위원회는 《COVID-19》라는 재난앞에서 현 《정권》이 로동법개악, 방위비증액 등으로 이전 보수《정권》의 전철을 답습하고있다, 《전태일3법》립법과 전 국민고용보험실행, 평화통일실현 등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대구민중대회를 열것을 다짐하였다. 집회에는 민주로총 조합원들과 시민단체관계자 4 000여명이 참가할것이라고 한다.

한편 14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참여한 부산항미군세균실험실폐쇄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미군세균실험실에 반입된 견본은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따라 보관, 이동할수 없게 되여있는 맹독물질이라면서 인터네트주민대회를 열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COVID-19》로 불안한 이때 맹독세균반입과 계속된 세균실험은 주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면서 시민안전을 저버린 무능한 행정을 대신하여 주민스스로의 힘으로 주권과 생명안전을 지킬것을 다짐하고 남조선강점 미군의 세균실험실폐쇄를 위한 180일간 서명운동에 돌입할것이라고 하였다.

본사기자

《야권련대》를 둘러싼 내부모순의 심화

최근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한데 의하면 보수세력들이 그 무슨 《야권련대》를 한다고 부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2021년 서울 및 부산시장보충선거에서 참패하는 경우 2022년 《대통령》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보수가 궤멸될수 있다고 하면서 《정권》에 불만을 품고있는 세력들을 총규합하여 《야권련대》를 구축하겠다고 하고있다.

얼마전 이 당의 원내대표는 라지오방송에 출현하여 《국민의 당》 대표나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이나 모두 립장이 같기때문에 선거막판까지 가면 힘을 합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단일후보가 되고 힘을 모아야 승리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국민의 당》 대표는 그 누구를 반대해서 승리한 정치세력은 없다, 《혁신련대》, 《미래련대》, 《국민련대》, 《국가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치세력들의 모임》 등 이런 방향으로 가는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야권련대》에 참여할 의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내부에서는 《당의 사활을 걸고 경쟁력있는 인물을 세워야 한다.》는데 대하여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후보선출방식에 대해서는 립장이 엇갈리고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당내에서 우리끼리 경쟁하고 난 후 외부후보와 단일화하는 그림이 그려질수 있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국민의당》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이 우리 당으로 들어올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며 당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올수 있어 경선규칙을 규정하기는 힘들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국민의힘》의 중진의원들속에서는 《외부인사들이 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치러야 한다.》, 《당내에 있는 후보들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야권련대》를 달가워하지 않는 발언들이 나오고있다고 한다.

더우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야권련대》라는게 무슨 야권, 우리 《국민의힘》말고 뭐가 더 있는가고 하면서 《국민의당》이 있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반문에는 쓴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보수세력들의 《야권련대》 움직임에 대해 남조선 각계는 재집권을 위한 정치적야합이라고 비난하고있다.

언론들은 《야권련대》가 성공한적이 없다, 2020년 《총선》때도 실패했다고 하면서 설사 련대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리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또다시 리탈하는 사람들이 나올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어느 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의 내부반발에 대해 《범야권시민후보는 내부반발을 뛰여넘기 쉽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단일후보를 내서 져도 문제이고, 그럴바에는 모험을 하는것보다 지더라도 자기 후보를 직접 내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당》 대표가 아직까지 서로 대립하는 립장을 취하고있다, 서로가 상대방의 정치력에 부정적견해를 표시하는만큼 《야권련대》형성에는 이들의 갈등이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고 한다.

남조선 각계는 《국민의힘》이 《집안에 인물이 없으니 가출자 찾는다.》라고 조소하면서 보수세력들이 꾀하는 《야권련대》는 재집권을 위한 정치적야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김 광 혁

광주의 여러 단체들이 비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지난 3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련대, 광주전남대학생진보련합 등이 또다시 광주에 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을 비난규탄하여 항의시위를 벌렸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의 《무릎사죄》는 한갖 보여주기에 불과하였다는것이 지난 3개월간의 행적에서 드러났다고 하면서 보여주기식행보로는 절대로 호남민심을 얻을수 없으며 호남민심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지금당장 5.18관련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련합소속 대학생들은 광주는 《국민의힘》의 사기에 당할 지역이 아니다, 《5.18망언》의원과 당원을 제명하지도 않고 《5.18특별법》제정에 나서지도 않으면서 광주를 찾는것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규탄하면서 광주광역시의회, 《광주학생사건 91주년 기념식》 등 김종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그림자투쟁을 벌리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여야간의 싸움이 격화

남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검찰이 당국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기결정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격 강행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싸움질이 본격화되고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전형적인 정치공세로 제기한 의혹만을 놓고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정기《국회》가 진행되고있는 마당에 수사를 벌려놓은 의도가 의심된다, 검찰총장이 《국정혼들기》에 나섰다고 일제히 비난하고있다고 한다. 이 당의 주요인물들은 《탈원전정책》은 현 《정부》의 중요정책이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정부》정책까지 간섭하겠다는것이나 같다, 검찰이 야당의 《청부수사》, 《정치수사》에 동원되였다, 검찰총장의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립장을 표시하고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검찰수사를 환영하면서 수사의 초점이 현 《정권》에 쏠리도록 더욱 부채질하고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청부수사》주장은 억지이다, 검찰은 흔들림없는 수사를 통해 조기폐쇄의 위법성과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떠들고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과 집권여당 대표가 로골적으로 검찰수사를 방해하고있다, 위법성정도에 따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아대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들은 검찰은 기본수사대상을 조기폐쇄를 결정한 최종결정권자로 정하고있다, 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것이라고 하고있다.

검찰특권을 폐지할것을 요구 광화문초불련대가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지난 3일 광화문초불련대가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특권을 폐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참가자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고 하면서 독재《정권》에서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휘둘렀고 지금은 적폐를 보호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두르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검찰에 주어진 과도한 특권과 관행은 검찰을 국민우에 군림하는 집단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한시바삐 검찰특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검찰의 각종 특권과 만행을 초불로 자르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검찰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폐지하라》는 항의서한을 대검찰청에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요구할 의지 표명

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가 전한데 의하면 남조선에서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요구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신문은 10월 30일은 남조선대법원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린지 2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피해자들은 응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강제동원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서울겨레하나 목요행동》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과 시민들이 10월 15일부터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0월 30일 당일에는 일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굳센 의지를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여 시위를 벌리는 일본시민단체 회원들

원한의 피값을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

11월 17일은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권확립을 위한 강도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한지 115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는 강압과 협박으로 날조한 이 불법무법의 《을사5조약》으로 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우리 민족에게 40여년간이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국토를 강탈하고 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유린하였을뿐 아니라 수백만명의 조선청장년들을 징병, 징용의 희생물로,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짓밟은 일제의 피비린내나는 죄악은 시간의 망각속에 잊혀질수 없는 력사의 락엽속에 묻어둘수 없는 우리 민족의 천추의 한이다.

하지만 엄청난 과거죄악에 대해 성근한 사죄와 배상을 할 대신 일본은 어떻게 놀아대고있는가.

우리 민족의 강토인 독도를 강탈하기 위해 발광하며 조선반도를 다시 넘겨다보고 남조선 각계층이 요구하는 일제시기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있으며 다른 나라의 지역들에 세워진 일본군성노예상까지 철거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등 범죄의 과거사를 합리화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첨단무기구입에 광분하고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려 꾀하면서 과거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속에 더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전범자들의 위패가 있다고 하는 야스구니진쟈에 대한 참배놀음만 보아도 그러하다.

력대 일본당국자들이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고 공물짝을 보내면서 군국주의와 해외침략을 미화해온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 당국자도 최근 야스구니진쟈에 공물을 보냈고 이전 당국자의 참배놀음에 대해서도 《개인의 자유》로 비호두둔하였다고 한다.

군국주의의 사상정신적거점이라고 할수 있는 야스구니진쟈에 대한 당국자들의 태도는 장차 일본이 어떤 길로 가려 하는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해준다.

죄악의 과거사를 부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외면하는 파렴치한 일본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것은 응당한것이다.

남조선의 정의기억련대는 정기수요집회를 통하여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는 여전하다고 하면서 일본군성노예상을 철거하려고 하는 일본은 여전히 총칼로 량민을 학살한 제2차 세계대전의 시간에 머물러있다, 가해자 일본은 수십년전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고 성토하였다.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설치된 일본군성노예상은 전쟁으로 인한 녀성피해자들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고 치욕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세계량심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일본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당사자들에게 마음을 다해 사죄해야 한다, 력사의 가해자로부터 반드시 사과와 반성을 받아내는 력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분노를 토로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일제식민지지배의 후유증은 75년이 넘도록 우리를 괴롭히고있다, 당국은 일본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구경만 할것이 아니라 과거사문제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절규하면서 정의기억련대를 공격하는자는 《토착왜구》다, 《토착왜구를 박멸하자!》는 구호를 들고 보수세력규탄에 궐기해 나서고있다고 한다.

과거죄악을 부정하는 일본당국에 대한 비판은 일본내부에서도 커지고있다고 한다.

최근 《강제동원문제의 옳바른 해결을 바라는 한일관계자일동》에 속하는 일본의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은 일제의 강제징용문제에 대해 가해자 일본정부의 강제동원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하며 교훈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국과 전범기업이 과거의 인권침해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것만이 강제동원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는 립장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사죄와 배상대신 력사외곡과 재침책동으로 대답하는 이상 일본에 대한 조선민족의 증오심은 더욱 배가될것이다.

우리 겨레는 침략의 과거를 미화분식하면서 군국주의 재침책동에 혈안이 되고있는 일본의 만행을 수수방관하지 않으며 과거의 피값을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

리 훈 혁

독도강탈야망 피렴치한

독도문제는 과거 일본의 강제징용문제, 일본군성노예문제 등과 함께 일본이 벌리고있는 력사외곡책동의 하나이다.

알려진것처럼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것을 《기념》한다면서 2005년 3월에 2월 22일을 《다께시마의 날》로 지정했으며 2006년부터 그날에 《기념》행사를 벌려오고있다.

독도를 자기들의 령토로 만들기 위해 일본은 조선동해를 《일본해》로 날조하여 국제적인 선전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으며 《다께시마는 일본의 고유한 령토》라는 문구를 학생들의 교과서에 박아넣어 새 세대들에게 주입시키고있다.

사실들은 일본의 독도강탈야망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준다.

일본이 독도강탈에 왜 그토록 혈안이 되여 날뛰는가.

네개의 큰 섬을 비롯하여 3 300여개나 되는 섬들로 이루어진 일본에 섬이 모자라서 독도에 군침을 흘리는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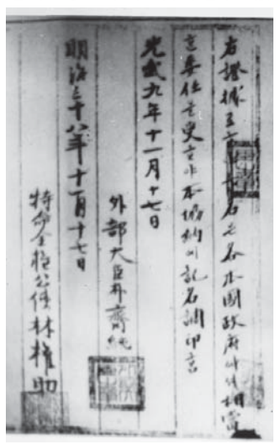
독도문제를 야기시켜 어느때이건 침략의 구실을 만들자는것, 독도를 징검다리로 하여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해보자는데 그 검은 속심이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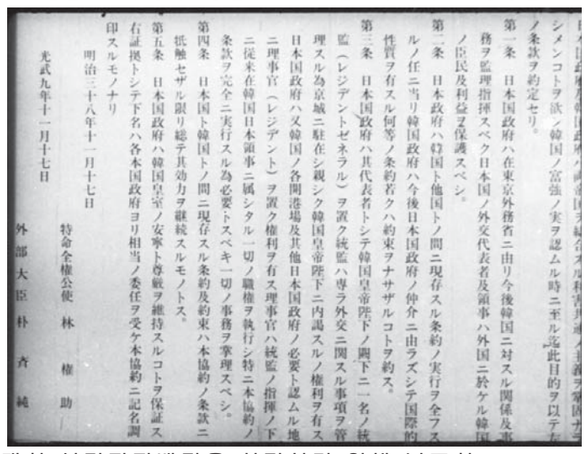
지금의 조선민족이 한세기전의 약소민족이 아니라는것을 깨닫지 못하는것이 일본의 가장 큰 과오이다.

가시에 찔려 피가 나오는것도 큰 고통일진대 살점같은 삼천리의 령토를 뜯어내려는 날강도에게 순순히 자기 땅을 내여줄 조선민족이 아니다.

《대동아공영권》, 《팔굉일우》를 부르짖으며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던 과거의 망상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본은 언제 가도 조선민족과 인류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할것이며 영원히 외로운 섬나라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다.

김 광 억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날조한 불법무효한 허위문서인 《을사5조약》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전민학습의 대전당 과학기술전당

◇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 이바지하고있는 과학기술전당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전당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이 완벽하게 반영된 건축물,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 대학생들은 물론 전체 인민이 찾아와 마음껏 지식을 배우는 정든 집으로 훌륭히 건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 각이한 분야의 자료를 열람할수 있는 과학기술전당의 정보봉사는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뿐아니라 전국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학습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인 과학기술보급망이 확대되여 전국각지의 거의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이 과학기술전당의 과학기술보급실망체계에 가입하였다.

과학기술전당에서 열린
제1차 전국교육과학성과전시회(2019년 12월)

◇ 2016년 1월 준공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술전당을 찾은 참관자수와 열람자수는 연 수백만명이며 과학기술전당의 홈페지리용자수는 연 2억 천수백만명에 달한다.

본사기자 김 춘 경

맛좋은 과일을 더 많이

공화국의 과수부문에서 맛좋은 과일을 더 많이 생산할 목표밑에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흐뭇한 과일작황

올해에 다른 농업부문과 마찬가지로 과수부문에서도 랭해, 큰물에 의한 침수, 태풍피해를 비롯한 자연재해의 영향을 심하게 받았다. 그런 속에서도 과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이악한 노력에 의해 흐뭇한 과일작황을 마련한 농장들이 늘어났다.

나라의 대규모과일생산단위의 하나인 과일군에서는 지난 7월과 8월 생산한 첫물 복숭아와 배를 평양으로 보내였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복숭아와 배를 가득 실은 과일수송차들이 상업봉사단위들로 향하였다.

고산과 북청, 온천 등 과일생산기지들에서도 례년에 없는 과일작황이 마련되였다.

끝간데 없이 사과바다가 펼쳐진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 탐스럽고 잘 익은 사과를 많이 수확하였다. 철령, 성북, 량사분장을 비롯한 여러 분장들에서 로력과 작업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많은 사과를 수확하였다.

과일생산을 과학화, 집약화

올해에 농업성에서는 봄철에 들어와 대기온도가 낮고 해비침률이 떨어진데 맞게 과일생산단위들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정률을 높이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알당 질량을 높이는데 모를 박고 과일나무비배관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였다.

농업연구원 과수학연구소에서는 사과, 배, 복숭아, 추리, 살구, 대추 등 각이한 수종의 우량품종접가지를 여러 과일생산단위들에 도입하여 과일생산량을 늘이는데 이바지하였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는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실현에 박차를 가하여 전자지도에 의한 과수영농지휘체계를 새롭게 완비하고 과수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올해에 1 800여t의 유기질비료와 4 300여t의 흙보산비료를 마련하였다.

과일군에서도 자체로 많은 흙보산비료와 물거름, 농약을 생산하여 시비하면서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올해에 지난해보다 1.5배의 사과를 증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온천과수농장, 사리원과수농장, 덕성사과농장들에서도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가지자르기와 열매솎음, 약뿌리기를 책임적으로 하여 많은 과일을 생산하였다.

과일맛경쟁도 활발히

과일생산단위들사이에 맛좋고 영양가높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경쟁이 열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다.

얼마전 평양에서는 각지 과수농장들에서 생산한 사과와 배맛평가를 위한 군중심사가 진행되였다.

과일군과 북청군의 과수농장들, 고산과수종합농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덕성사과농장 등 각지 과수농장들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종의 사과와 배들이 출품된 군중심사는 심사성원들이 품종별로 맛을 보면서 단맛과 신맛, 수분, 향기, 굳기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군중심사에 참가한 평양과수농장의 일군인 고철웅박사는 《다른 단위들에서 생산한 과일맛을 보면서 우리가 생산한 과일맛과 대비해보니 과수부문 기술일군의 책임감을 더 깊이 자각하게 된다. 앞으로 과일품종을 늘이는것과 함께 보다 맛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홍 범 식

우리 공장, 우리 제품

색과 무늬가 독특한 천리마타일

천리마타일공장에서 생산한 외벽타일, 바닥타일, 장식타일 등 여러 종류의 타일제품들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질이 높아 인기가 대단하다.

천리마타일공장은 국내에 무진장한 석회석과 여러 지방에 흔한 돌과 흙을 원료로 하는 각종 타일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건재품들을 생산해내는 현대적인 건재생산기지이다.

흐름선을 타고 외벽타일, 내벽타일, 바닥타일 그리고 건축물을 더욱 아름답게 단장할수 있는 여러가지 무늬의 장식타일들과 그림타일 등 수십여종의 각종 타일들이 줄지어 쏟아져 나오는 광경은 참으로 볼만 하다.

현재 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천리마타일들은 종류가 다종다양하고 색과 무늬가 독특할뿐아니라 잘 깨여지지 않아 그 수요가 높다.

특히 첨단기술을 리용하여 생산한 꽃무늬장식타일, 인조대리석타일, 복합유리타일 등 새형의 타일들을 본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양과 무늬, 색갈 등에 있어서 발전된 나라들것보다 품질이 뛰여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묘한 돌이나 쪽널을 맞추어놓은것처럼 이채로운 타일들, 나무줄기나 잎, 무늬 등이 생동하게 그려져있어 손으로 만져보고서야 타일이라는것을 알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공장에서 생산한 타일들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국수경연 1등의 비결

－청류관에서－

얼마전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옥류관, 청류관, 평양면옥사이의 국수경연이 진행되였다. 경연에서는 청류관에서 만든 고기쟁반국수가 1등을, 평양랭면은 옥류관이 1등을 하였다. 그에 대해 황정실 청류관 경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경연이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였는가.

경연은 매 단위의 경험있는 료리사들이 현장에서 만든 평양랭면과 고기쟁반국수, 육수의 맛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경연에서는 어느 단위에서 국수의 고유한 맛을 더 잘 살리는가를 놓고 판정하였는데 경연 첫시작부터 경쟁열기로 달아올랐다.

경연참가자들은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과정에 련마한 료리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반죽 및 누르기, 꾸미가공, 말기, 고명 등에서 전통적특성과 현대적미감을 잘 살려 음식들을 만들어 내놓았다.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 장철구평양상업대학의 일군, 연구사들로 구성된 전문가들과 인민봉사지도국, 평양시인민위원회의 급양봉사단위들에서 선발된 성원들이 경연심사를 하였다.

이번 경연에서 우리는 양념으로 무친 닭고기와 매끈하면서 쫄깃한 국수사리, 쪽낸 닭알, 채친 배, 맑은 고기국물에 시원하고 찡한 맛이 나는 동치미물을 섞은 육수로 고기쟁반국수의 별미를 특색있게 살려 높은 평가를 받고 1등을 하였다.

—고기쟁반국수의 독특한 맛을 살릴수 있은 비결은?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고기쟁반국수의 육수와 꾸미를 만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심히 가르쳐주신대로 했을뿐이다.

원래 고기쟁반국수의 전신은 어북쟁반국수이다. 어북쟁반국수는 쟁반에 국수를 담고 어북살고기와 버섯, 닭알, 초대, 오이, 배 등 고명을 넣어 만든것인데 봉건사회에서 궁중에서만 만들어 먹던것이라고 하여 궁중음식으로 되여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기쟁반국수를 잘 만들어 봉사하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어북대신 닭고기를 가지고 어북쟁반국수처럼 쟁반국수를 만들어 봉사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고기쟁반국수의 맛까지 몸소 보아주시며 국수에 놓아주는 고기량을 가늠하기도 하시고 닭고기가공을 잘할데 대한 문제, 국수발을 질기고 매끈매끈하게 만들데 대한 문제, 육수를 잘 만들데 대한 문제, 음식감보장대책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마련해주시려 마음쓰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는 고기쟁반국수의 고유한 맛과 향취를 더 잘 살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수직식메밀껍질벗기는 기계를 창안한것을 비롯하여 어떻게 하면 맛좋고 영양가높은 고기쟁반국수를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하겠는가 하는 일념으로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하기에 청류관을 찾는 사람들마다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어린 고기쟁반국수가 정말 별맛이라고, 맛으로 알기전에 뜻으로 헤아리게 되는 국수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우리는 이번 경연에서 1등을 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더욱 분발함으로써 고기쟁반국수만이 아니라 평양랭면도 잘 만들어 인민들의 호평을 받도록 하겠다.

피부보호, 상쾌한 기분

기능성양말들

평양양말공장에서 개발한 여러가지 기능성양말들이 누구나 즐겨 찾는 명제품으로 되고있다.

공장의 차국철 공업기술연구소 부소장은 《우리 공장에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첨단제품들을 개발할 목표를 내세우고 우리의 원료와 자재에 의거하여 기능성양말들을 개발하였다.》고 말하였다.

평양양말공장에서는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섬유와 약제들에 대한 분석을 과학적으로 진행한데 기초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기능성양말들을 개발하는데 힘을 넣었다.

이 과정에 명주실과 면실을 교연하여 양말을 생산하는 방법과 명주실과 면실을 따로따로 실틀에 메우고 양말을 생산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명주양말, 견교연양말, 참대양말, 토끼털양말과 같은 여러가지 의료용기능성양말들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명주를 원료로 하여 만든 명주양말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흡수성이 높아 기분이 상쾌한감을 준다고 한다.

견실과 면실을 교연하여 만든 견교연양말도 피부기능과 영양을 높여 피부의 로화를 방지하고 발육을 촉진하며 자외선과 유해가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효과가 크다.

공장에서 개발한 기능성양말에는 축구양말, 롱구양말, 탁구양말, 정구양말과 같은 운동양말도 있다.

이러한 운동양말들은 운동시 강한 보호능력과 운동효과를 높여줄뿐아니라 높은 속도와 깨끗한 위생성을 보장해준다.

또한 신축성이 강하고 공기통과성이 좋을뿐아니라 발목구부림을 편하게 하고 미끄럼을 방지하는것으로 하여 전문체육인들과 애호가들이 좋아한다.

기능성양말들은 일반양말에 비해 1.2배나 질긴 특성을 가지고있다.

공장에서 개발한 여러가지 기능성양말들은 봉사망들에 나가자마자 인기를 모았으며 그 수요가 전국적범위로 확대되고있다.

이에 맞게 공장에서는 명주실과 면실로 교연실을 생산할수 있는 교연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설치하고 기능성양말들을 생산할수 있는 생산공정들을 새롭게 확립하였다.

차국철 공업기술연구소 부소장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건강에 좋은 우리식의 기능성양말들을 더 많이 개발하여 인민들에게 질좋은 양말을 안겨주겠다는 결심을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김 혜 성

시초

한 녀의사의 수기 (1)

김 영 일

나는 사랑한다

우리 진료소에 취재왔던 기자선생
호담당의사 나를 보고 말했다
수십년세월 오늘까지 내가 걸어온 길
그 누가 노래로 엮는다면
고마운 우리 조국에 대한 송가가
되리라고

송구스러워라
내가 한 일이 뭐라고
내 정녕 인민의 보건일군으로
어떤 길을 걸어왔던가
이 한밤 깊어지는 추억이여

꿈많던 중학시절
하얀 위생복에 청진기를 귀에 건
모습
의사는 녀자들에게 맞는 직업으로
여겨지여
들뜬 기분에 의학대학을 지망했건만

헐치는 않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담당세대를 돌고
구급환자가 생기면
한밤중이라도 달려가야 했거니

너무도 힘이 들어
주저앉을 생각도 그 몇번 했건만
나를 믿어주고 아껴주고 내세워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 저버릴수가
없었다
그 나날에 알았노라
바치는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 품속에서 성장
했는지
우리 인민들이 모르고 받은
나라의 혜택이 얼마나 크고 따사
로운지

무상치료제가 법화되고
생활화된 우리 조국
이런 나라 이런 제도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아, 나는 사랑한다
아무리 좋은 직업 많다 하여도
호담당의사 나의 직업을
인간사랑이 만발한 인민의 조국
우리 나라를
나는 나는 사랑한다

건강일지

수십년전의 일이지만
나의 귀전에는 오늘도 들려오고
있다
오늘도 나를 채찍질해주는
옛 소장선생님의 그 꾸지람이

어느날 총화시간
담당세대 주민들의 건강상태
나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고
마지막에 무심결에 한마디 했다
어제 담당구역의 쌍둥이집 세대가
이사를 갔다고

사업수첩 덮으려던 소장선생
잘됐다고 반색하며 물었다
—인민위원회에서 식구가 많다고 큰집
을 준다더니…
건강일지를 해당 진료소에 보냈어요?
—아직 못…
—못 보냈어요?! 정말 선생두…

좀해서는 싫은소리 하지 않던
소장선생
정색해서 준절히 책망했다
그러면 그들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꽃봉오리 탁아소아이들도 있는데

인민들의 건강관리에서는
단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던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있다고 하던
목소리
오늘도 귀전에 울려오네
내 마음속에 메아리되여

사람들이여 아는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하루하루의 건강상태가 기록된다
는것을
어머니사랑보다 더 큰
따뜻한 사랑이 보살피고있다는것을

모란봉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6)

모란봉의 제일 높은 최승대에 올라

모란봉의 단풍든 나무잎새들도 하나둘 떨어지고있었다.

그 잎새들사이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릉선을 따라 나있는 길로 최승대에 이르렀다.

을밀대와 청류정을 비롯하여 강가나 못가, 절벽우에 세운 다른 루정들과 달리 최승대는 산봉우리정점을 강조하며 세운것으로 하여 또 다른 특색을 가지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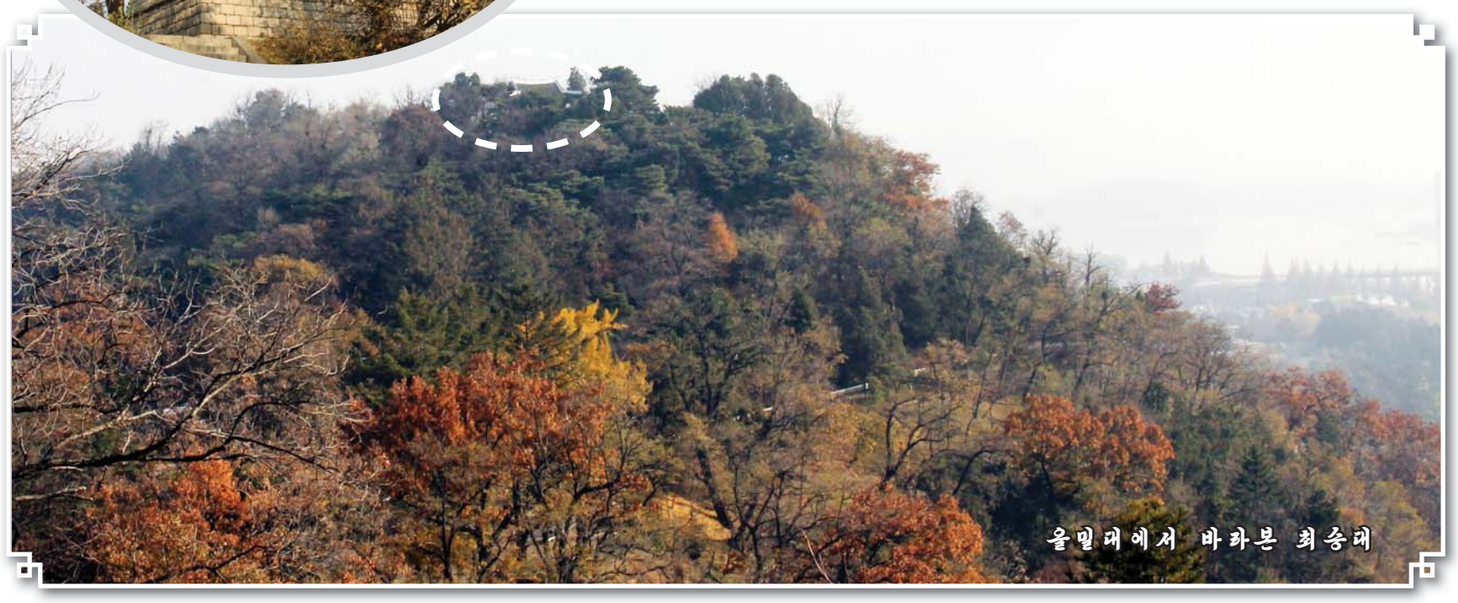
이곳에서 리일심연구사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최승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려주었다.

최승대가 서있는 자리는 원래 6세기 중엽에 쌓은 고구려의 평양성 북성의 북쪽 장대터였다고 한다.

처음 이 루정을 지었을 때에는 《오승대》라고 불렀는데 그후 어느때인가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제일 아름답다고 하여 《최승대》라고 고쳐 부르게 되였다는것이였다.

지금의 최승대는 그후에 고쳐 세운것이라고 한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최승대에 올랐다.



을밀대에서 바라본 최승대

구름우에 솟았는가 모란봉의 정점에 날아갈듯 추녀를 편 최승대에서 바라보이는 평양의 절경은 절로 감탄이 흘러나오게 하였다.

활짝 피여난 꽃송이와도 같은 5월1일경기장이며 푸르른 대동강물에 두둥실 떠있는것만 같은 릉라도, 그 너머로 층층 높고낮은 문수거리의 전경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머리를 돌리니 려명거리와 북새거리의 초고층, 고층아빠르들이 한눈에 안겨와 감흥을 더해주었다.

문득 리일심연구사가 옛날 어느 한 시인이 대동강 한복판에 두둥실 떠있는 릉라도를 바라보며 지었다는 옛시를 읊는것이였다.

두갈래로 갈라진 맑은 강물가에
빨래하는 저 녀자 은여울에 앉았어라

강우의 릉라비단 방치질 끝마치자
넓고넓은 들판우에 한 섬이 떠오르네

절승경개를 자랑하는 최승대에 올라 주변을 둘러보니 평양의 아름다운 전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본사기자 김 철

치료용감탕자원을 적극 개발리용

공화국에서 치료용감탕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고있다.

치료용감탕자원은 전국의 80여개 지역에 분포되여있는데 그중에서 시중호감탕과 광량만류황감탕은 치료용감탕으로 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다.

조선동해기슭의 작은 만이였던 시중호는 모래뚝으로 막혀 형성된 바다자리호수인데 이곳 료양소에서는 감탕으로 전신욕과 국소부분을 찜질하는 방법으로 병치료를 하고있다.

니토성감탕인 시중호감탕은 여러가지 원인의 만성뼈마디질환, 만성위염, 수술후유증, 신경계통질환을 치료하는데 널리 리용되고있다.

이 감탕은 전국각지의 여러 료양소와 병원들에 운반리용되고 있다.

료양소들에서는 감탕의 온열적, 기계적, 화학적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탕치료와 광천물리치료를 배합하고 있다.

조선서해의 광량만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는 류황감탕도 세계적인 치료용감탕들가운데서 일류급감탕으로 평가되고있다.

광량만류황감탕은 물질대사의 활성화, 면역기능부활, 운동기능장애, 신경기능장애와 염증치료에 특효가 있다.

공화국에는 의료용감탕가공기술이 확립되고 생산공정이 공업화된 광량만류황감탕가공공장이 있다.

공장에서는 영양학적 및 약리적효능이 높은 10여종의 기능성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본사기자

단나무재배연구에서 성과

산림연구원 경제림연구소에서 단나무재배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단나무는 열매에 여러가지 비타민과 생리활성성분들, 필수미량원소들이 많이 들어있어 약용 및 식용가치가 매우 크다.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단나무를 널리 퍼칠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는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왔다.

이 나날 단나무모생산주기를 훨씬 앞당기면서도 많은 로력을 절약하고 나무의 사름률도 높일수 있게 하는 단나무영양단지모에 의한 식수방법을 새롭게 확립하였으며 새 식수방법을 각지에 도입일반화하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도 기동성있게 해결해나가고있다.

과학자들은 단나무영양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곳 과학자들은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단나무열매의 영양학적가치와 생산성을 보다 높일수 있게 하였다.

한편 단나무림조성에 림농복합경영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연구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단나무와 작물을 함께 재배하고있는 대상지들에서 적용해오고있는 방법들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합리적인 구조모형을 선정한 과학자들은 연구를 심화시켜 단나무림농복합경영방법을 확립하고 재배실천에 구현하였다.

이곳 연구사들은 나라의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려는 드높은 열의를 안고 연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민족유산보호사업을 과학화하여

조선민족유산보존사에서 최근 문화유산보호사업을 과학적으로 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곳 연구사들은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함께 력사유적들의 사진, 지도, 해설자료들을 전면적으로 자료기지화한 민족유산지리정보체계 프로그람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전자도서 《조선의 자연유산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완성하였으며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고구려벽화무덤과 새로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들, 고구려도성의 건설과 관리에 대한 도서들도 집필하였다.

또한 력사유적건물에 쓰이는 단청색감을 국내에 흔한 무기질색감에 기초하여 만들었으며 평양과 개성의 력사유적들에 도입하여 몇년간 관찰하면서 색감의 질과 효과성을 확증하였다.

지금 전국각지의 력사유적들에 이 단청색감이 도입되고있다.

평양일대의 옛 건축물들과 명승지 묘향산의 력사유적들에 대한 실측도도 완성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음식

통자라찜

통자라찜은 장생불로음식이다.

자라는 음을 보하고 열을 내리우며 어혈을 없앤다. 또한 굳은것을 유연하게 하며 강장작용, 열내림작용, 열물내기작용, 간의 지방화를 막는 작용, 강심작용을 한다. 자라탕은 몸이 여위고 기침을 하는데, 피가래가 나오며 미열이 나는데 쓴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라 1마리(500g)일 때 참대순 10g, 참나무버섯 80g, 햄 30g, 진채 2g, 생강 10g, 닭고기가루 7g, 파 30g, 료리용술 20g, 소금 3g, 사탕가루 3g, 진한 간장 0.2g, 맛내기 2g, 흰 후추가루 0.2g, 고기국물 150g을 준비한다.

자라는 껍질을 벗겨 등딱지를 뜯어내고 내장을 뽑은 다음 찬물에서 깨끗이 씻어낸다. 자라배부분은 열십자로 잘라놓는다.

파의 흰 부분은 채치고 나머지는 2~3㎝길이로 토막낸다. 생강은 편을 낸다. 참나무버섯은 부채형으로 썰고 참대순과 햄은 편을 낸다.

자라에 소금, 맛내기, 닭고기가루, 사탕가루, 료리용술, 흰 후추가루, 생강편, 파토막을 두고 3시간정도 재운다.

재운 자라를 찜가마에서 40분간 쪄내고 썰어놓은 참나무버섯과 참대순, 햄을 자라등에 보기 좋게 올려놓아 다시 10분간 찐다.

자라를 찔 때 나온 물에 진한 간장, 고기국물을 두고 졸여서 즙을 만든다.

쪄낸 자라를 그릇에 담고 채친 파, 진채로 고명한 다음 즙을 부어낸다.

본사기자

민족시문학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진화와 시 《버들》

진화는 리규보, 김극기 등과 함께 고려 중기에 이름을 날린 재능있는 시인의 한사람이다.

그는 불공평하고 모순에 찬 당대의 사회현실과 권력싸움이 거듭되는데 불만을 품고있었으며 그로부터 출발하여 은일적인 생활을 지향하고 권세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동정하였다.

진화의 시작품들은 랑만주의적색채가 강하고 표현들이 부드러우면서도 정서가 짙은것이 특징이다.

13세기에 창작된 경기체가요인 《한림별곡》의 첫 절에서도 노래되고 《보한집》, 《동국리상국집》에도 씌여져있는바와 같이 당대의 문단에서는 리규보와 진화를 함께 칭찬하면서 《리정언, 진한림》이라고 불렀다. 진화의 시작품들은 고려 후기의 시문학에서 표현된 랑만주의적경향의 특성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다. 그의 시작품으로 한자시 《도원의 노래》, 《버들》 등이 있다.

《버들》

서울 서쪽언덕에 만가닥
실버들가지
봄시름 머금고 평온한 그늘
이루더니

사나운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와
연기속에 비속에 다 시들어
버렸네

시에서는 통치배들의 전횡과 폭압정치를 봄시름 머금고 평온한 그늘을 이루었던 만가닥의 실버들가지들을 모조리 시들어버리게 한 사나운 바람에 비유하였다.

본사기자

걷기운동의 효과

걷기운동을 하면 다리가 든든해지고 허리힘이 세여지며 온몸의 힘살이 단련되면서 몸안의 장기들도 튼튼해진다.

또한 비만증과 나이가 들면서 오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을 비롯한 난치의 병들도 막을수 있다.

걸음을 걸을 때 심장은 센 수축력을 얻게 되며 몸에서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심장의 기능이 높아지고 폐의 활동도 좋아진다.

뇌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여 뇌의 활동을 높여줌으로써 기억력과 집중력, 사고력을 높여준다.

한걸음의 폭을 보통 75㎝정도로 하는데 중년인 경우 90~120걸음, 나이가 많은 사람은 60~70걸음이 좋다.

나이와 몸상태의 고려없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걸음의 속도와 거리를 늘여야 한다.

하루걷는량은 1만보이상 즉 4㎞정도로 하는것이 좋다.

걷기운동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다리맥이 없는것 같으나 한달정도 지나서부터 효과가 나타난다.

아무리 좋은 약도 꾸준히 써야 효력을 볼수 있는 것처럼 걷기운동도 정상적으로 하여야 건강을 유지할수 있다.

본사기자

사화

최무선이야기 (4)

최무선은 집을 떠나기 앞서 자기 청춘의 온 정열이 스며있는 그 방에 오래동안 앉아있었다.

(지금 당장은 나라가 위급하니 연구를 중단할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이 일도 저 일도 모두 나라를 위한 일이니 떠나야 한다!)

이윽고 최무선이 떠날 차비를 갖추고 나섰다.

최무선은 깊숙이 허리를 굽혀 집안사람들에게 작별인사를 하였다.

최무선의 어머니와 안해는 몇번이고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최무선을 포함한 고려측 2만명의 방어군은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왜구들중에서 겨우 살아남은 놈들은 목숨만 붙어서 도주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에 기여들었던 왜적들은 짧은 시일내에 격퇴되였다.

조정에서도 겨우 한숨 돌릴수 있었고 백성들도 죄였던 가슴을 풀어놓을수 있었다.

최무선은 집에 돌아온 이튿날부터 화약연구에 달라붙었다.

그는 깊은 밤 실험에 지쳐 피곤할 때나 실험에서 실패하여 앞이 막막하게 생각될 때마다 자기가 직접 보고 온 마을과 백성들의 참상을 회상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군 하였다.

불타고 허물어진 오막살이, 참혹하게 죽은 늙은이와 젊은 아낙네들, 철없는 어린애들의 시체가 눈에 삼삼하였고 그들모두가 하루바삐 화약을 만들어 왜적을 물리쳐줄것을 부탁하는것 같았다. 그때마다 그는 눈을 번쩍 뜨고 자세를 바로잡군 하였다.

이럴 때면 조수의 역할을 하고있던 심부름군 돌쇠도 젊은 주인의 내심을 알아차린듯 졸리는 눈을 손등으로 문지르며 최무선의 얼굴을 쳐다보군 하였다.

《돌쇠야, 먼저 자거라.》 하고 최무선이 낮게 말하면 《아직 괜찮사와요.》 하는 돌쇠의 낮은 대답이 매일같이 반복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물거리는 불길과 물끓는 소리와 이상야릇한 냄새로 가득찬 속에서 번번이 동창에 아침해를 맞이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밤 그들은 폭발약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여러가지 실험을 하던중 난데없이 펑 하는 폭발소리와 함께 불이 벙끗 일어났던것이다.

돌쇠는 그 순간 깜짝 놀라 궁둥방아를 찧고 나가넘어져서 정신을 잃었다. 집안사람들도 모두 놀란 얼굴로 모여들었다.

모두들 겁을 먹은듯 들여다보는 방안에서 최무선만은 희색이 만면하여 들뜬 소리로 웨치였다.

《성사요! 성사! 인젠 알았소!》

집안사람들은 혹시 정신이상이 되지나 않았나 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실험기구들이 뒤죽박죽이 된 방안은 불빛이 어슴푸레한데 한사람은 죽은듯 나가넘어져있고 또 한사람은 전에 없던 큰소리로 떠들어대고있지 않는가! 더군다나 무슨 짐승이 썩은것 같은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데는 그만 얼굴을 돌리지 않을수 없는 형편이였다.

부친은 침착히 방안으로 들어와서 최무선에게 물었다.

《그래, 성사됐다는 화약이 어느것이란 말이냐?》

《인젠 없습니다. 벌써 날아가버렸습니다.》

최무선은 그때야 옷깃을 여미고 공손히 대답하였다.

《날아가버리다니?》

《터졌습니다. 그러나 근심마십시오. 인젠 화약의 근본을 알아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만드는 법을 알았단 말이냐?》

《네, 물론 아직 첫걸음입니다. 그게 정말 화약이라면 그만한 소리만 나겠습니까. 집채도 떠나갈 판인데요.》

《뭐, 이 집채가 떠나간단 말입니까?》

정신을 차린 돌쇠가 불쑥 말참견을 하는 바람에 모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와 안해는 또다시 돌아서서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였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였다.

다음날부터 최무선의 연구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였다. 그는 어제 폭발한 정도의 화약을 손쉽게 만들어낼수 있었다.

(인젠 확실하다. 문제는 이 폭발의 힘을 더 강하게 하면 될것이다!)

최무선은 피곤한줄 몰랐다.

이제 이 일이 크게 성사만 되는 날이면 간악한 왜적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할것이 아닌가!

그러던 어느날 눈쌓인 송악산에 난데없이 봉화가 올랐다.

(국난이다!)

최무선은 동창을 열고 이 봉화를 복잡한 마음으로 쳐다보았다.

조정에서는 급기야 방어군을 편성하여 안우, 정세운 두 장군으로 하여금 적을 치게 하였다.

그러나 흉악무도한 적은 닥치는대로 략탈, 살륙하며 쳐들어오고있었다.

당황한 고려조정은 남아있는 군대를 급작스레 죄다 동원하였다. 군대가 아닌 사람들도 수많이 자진하여 나아갔다.

최무선의 친구들도 군대에 나갔으며 최무선도 다시 칼을 잡기로 결심하게 되였다.

대동강이름의 유래

평양의 중심부로는 대동강이 유유히 감돌아흐르고 있다.

길이가 450.3㎞인 대동강은 랑림산줄기에서 시작하여 620개의 크고작은 지류들을 모아가지고 복잡한 나무가지모양의 하계를 이루고있다.

예로부터 물이 맑고 깨끗한 대동강의 지명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따르고 있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반영한 고전문헌기록에 의하면 《대동강》이란 《여러 강이 모여 수도로 흐르는 강》이라고 해석하고있다.

력사문헌들인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들에서는 오늘의 대동강을 《패수》, 《왕성강》이라고 하였다.

《대동강》에서 《대동》은 《크다》라는 뜻으로 쓰이였다.

《대동강》이라는 이름은 이전의 《왕성강》이라 불리우던 이름을 고쳐 부른것으로서 《크다》라는 의미의 《대동》에는 《수도의 강》, 《왕》이 있는 곳을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 담겨져있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아무리 남모르게 하는 말도 소문이 난다는 뜻으로 언제나 말을 함부로 하는것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

❖ 말은 보태고 떡은 뗀다.

갈수록 말은 보태져서 커지고 음식은 뗴여먹어 줄어든다는 뜻으로 말이란 퍼지면서 자꾸 보태지게 된다는것을 이르는 말.

❖ 꿀먹은 벙어리.

속에 품은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잠자코있는 사람을 비겨 이르는 말.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